

【 주간 이슈 】

보험회사 가계대출 현황 및 시사점

유진아 연구위원

- 보험회사의 가계대출은 2001년말 32.6조원에서 2010년말 66.0조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전체 가계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 기간 10.7%에서 8.8%로 하락
 - 최근 은행 및 비은행 예금기관의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빠르게 증가한 반면, 생명보험회사의 경우 약관대출을 중심으로 증가
- 이처럼 은행 및 비은행 예금기관보다 보험회사의 가계대출 증가율이 낮은 것은 금융업권별 자산운용 전략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하기 때문이지만 특히 대출 서비스 공급 측면에서의 금융업권별 차이가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 첫째, 가계가 대출 금융기관을 선택할 때 고려하는 요인이 금융기관 신뢰도, 대출심사 편의성, 대출서비스 접근성 등인데 보험회사는 대출서비스 접근성 측면에서 은행 또는 비은행 예금기관보다 불리
 - 은행 및 비은행 예금기관의 경우 예금·대출서비스를 중심으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대출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인프라가 보험회사보다 잘 갖추어진 편임.
- 둘째, 전통적인 금융서비스가 금융권역별로 다르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대출채권의 수익률 상대적으로 높음에도 불구하고 자산구성에서 대출채권의 비중이 낮음.
- 보험회사는 금융업권간 업무영역 확대 추세에 대응하고 수익률 제고를 위해 자산구성에서 대출채권의 비중을 높이고자 할 경우 대출서비스 접근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1. 검토 배경

□ 2001년부터 보험회사의 가계대출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전체 가계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하락

- 대출잔액 기준으로 2001년~2010년 기간 동안 은행과 비은행 예금기관의 가계대출은 각각 2.8배와 3.3배 성장하였는데, 보험회사 가계대출은 2.0배 성장에 그침.
- 이에 따라 보험회사 가계대출이 전체 가계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1년 10.7%에서 2010년말 8.8%로 1.9%p 하락

<표 1> 금융기관 가계대출 추이

(단위 : 조원, %, 배)

	2001년말(A)	2003년말	2007년말(B)	2010년말(C)	C/A	C-B
예금은행	156.7 (51.6)	253.8 (60.3)	363.7 (61.1)	431.5 (51.8)	2.75	67.8
주택담보대출		152.5	221.6	284.5		62.9
비은행 예금기관	49.3 (16.2)	68.3 (16.2)	110.4 (18.5)	164.4 (22.0)	3.33	54.0
주택담보대출	-	-	46.6	73.1	-	26.5
보험회사	32.6 (10.7)	42.9 (10.1)	55.9 (9.4)	66.0 (8.8)	2.02	10.1
대출총액	303.5 (100.0)	420.9 (100.0)	595.4 (100.0)	746.0 (100.0)	2.46	150.6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 대출상품별 최근 증가 추이를 비교하면 은행 및 비은행 예금기관의 주택담보대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반하여 생명보험회사의 주택담보대출은 증가세가 둔화

- 생명보험회사는 약관대출과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대출채권이 증가하였고, 손해보험회사는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대출채권이 증가
 - 약관대출 및 신용대출의 경우 장기저축성보험을 보유한 고객을 대상으로 대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의 대출상품별 증가추이에 차이가 발생

- 또한 은행에 대한 건전성 규제가 강화된 한편, 그 동안 가계의 대출수요가 높게 유지되고 있어서 비은행 예금기관의 대출이 빠르게 성장
 - 주택담보대출은 주택 마련을 목적¹⁾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데 2010년의 경우 주택매매 부진 속에 전세가격이 전년대비 10.6% 상승함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증가

<표 2> 보험회사 대출채권 추이

(단위 : 조원, %, 배)

	2001년말(A)	2003년말	2007년말(B)	2008년말	2010년말(C)	C/A	C-B
생명보험회사 (가계대출 비중)	39.4 (69.5)	45.3 (76.8)	56.4 (75.2)	62.7 (74.5)	66.3 (72.8)	1.68	9.9 ³
부동산담보	8.5	10.6	15.2	16.6	16.1	1.89	0.9
약관	10.9	16.9	25.7	28.7	31.8	2.92	6.1
신용	16.3	13.7	11.4	13.4	14.5	0.89	3.1
손해보험회사 (가계대출 비중)	4.3 (65.8)	6.3 (73.7)	11.3 (69.1)	13.2 (68.3)	17.3 (64.3)	4.02	6.0
부동산담보	1.4	2.8	5.2	6.1	8.0	5.71	2.8
약관	0.8	1.7	3.2	3.6	4.6	5.75	1.4
신용	1.4	0.9	0.8	1.2	1.7	1.21	0.9

주 : 1) 한국은행이 집계하는 보험회사 가계대출은 공제조합 가계대출을 포함하지만, 금융감독원은 해당 부분을 제외
 2) 대출상품별 가계대출 및 기업대출 구분 불가
 3) 생명보험회사의 경우 콜론 및 유가증권 담보대출 등 기타 대출이 감소

자료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본고는 보험회사 가계대출 증가율이 예금기관보다 낮은 이유를 보험회사의 대출채권 보유동기(공급측면)와 가계의 대출 금융기관 선택측면(수요측면)에서 접근하여 분석함.

- 공급측면에서 보험회사가 대출채권을 보유할 동기가 크지 않은 경우 보험회사가 가계대출을 늘릴 유인이 적어 대출채권 증가속도가 느릴 가능성 검토
- 수요측면에서 소비자의 타 금융기관 대출상품에 대한 선호유인이 있는지를 검토

1) 가계금융조사(2010), 통계청

2. 보험회사의 대출채권 보유 동기

<유가증권과 대출채권 보유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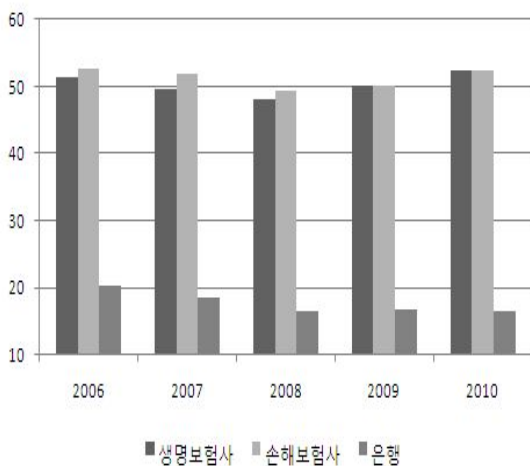
□ 보험회사의 경우 채권, 주식 등 유가증권을 주 자산운용수단으로 활용하고 금융시장이 불안정할 때 대출채권을 보조적으로 활용

- 보험회사는 총 자산의 약 50%를 채권, 주식 등 유가증권으로 구성하여 유가증권 중심으로 자산을 운용하고, 약 20%를 대출채권으로 운용
- 그런데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발한 직후 금융시장이 불안정해지자 보험회사는 유가증권 비중을 줄이고 대출채권 비중을 늘렸으며, 금융시장이 회복세로 돌아서면서 대출채권 비중을 다시 축소시킴.
 - 생명보험회사 대출채권 비중의 경우 2007년말 18.9%에서 2008년말 19.6%로 증가하였는데 2010년에 이르러 다시 16.2%로 감소

<그림 1> 은행 및 보험회사의 대출채권 및 유가증권 비중 추이

유가증권 비중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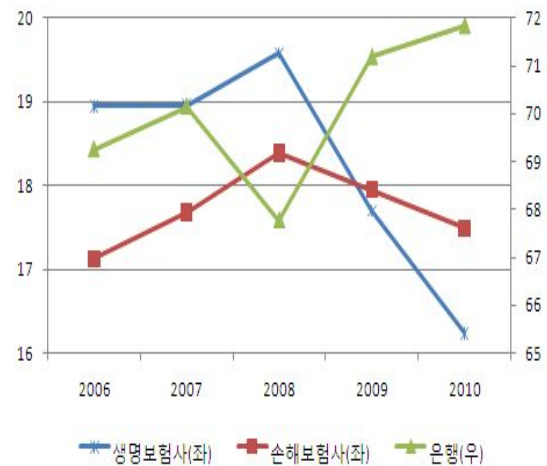
(단위 : %)



자료 : 금융감독원

대출채권 비중추이

(단위 : %)



□ 은행의 경우 대출채권 중심으로 자산을 운용하고 금융시장이 불안정할 때 가계대출 비중을 줄임.

- 은행은 자산의 약 70%를 대출채권으로 보유하고 있는데 금융위기 발발 직후 대출채권 비중을 2007년 70.2%에서 2008년 67.8%로 줄였고 경기회복에 따라 2010년 71.8%로 늘림.
 - 전체 가계대출에서 은행의 비중과 더불어 은행 자산에서 가계대출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가계대출 건전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면 은행은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는 경향을 보임

□ 은행과 보험회사의 자산운용 차이는 이들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전통적인 금융서비스가 다르기 때문임

- 은행의 경우 예금 및 대출서비스를 전통적인 금융서비스로 제공하는 금융기관이기 때문에 대출을 주요 자산운용수단으로 사용

<유가증권과 대출채권 투자 성과>

- 샤프비율은 위험 대비 투자수익을 나타내는데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 모두 대출채권 샤프비율이 유가증권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생명보험회사의 경우 유가증권과 대출채권 투자수익률의 표준편차가 동일하나 대출채권의 수익률이 높았기 때문이고, 손해보험회사의 경우 수익률은 비슷하나 대출채권 수익률의 표준편차가 낮았기 때문

<표 3> 보험회사의 투자성과

(단위 : %)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유가증권	대출채권	가중평균	유가증권	대출채권	가중평균
FY2004	수익률	6.2	10.1	7.3	8.1	8.3	8.2
FY2006	수익률	5.7	9.3	6.7	7.1	7.8	7.3
FY2008	수익률	4.3	8.6	5.5	3.8	7.0	4.8
	평균	5.6	9.1	6.6	7.6	8.0	7.7
6개년	표준편차	0.8	0.8	0.8	2.7	1.5	2.2
	샤프비율2)	1.5	6.2	2.9	1.2	2.5	1.6

주 : 샤프비율=(평균수익률-무위험수익률)÷수익률 표준편차
 자료 : 조영현(2011), 보험연구원 재무분석 7호, 인용

<유가증권과 대출채권 위험계수>

- 위험기준 자기자본제도(RBC)에 따르면 금리리스크와 신용리스크 측면에서 대출채권의 리스크 계수가 유가증권과 같거나 또는 낮기 때문에 요구자본량을 감소시킬 동기를 가진 보험회사는 대출채권 보유비중을 늘릴 유인이 있음.
 - 채권에 적용되는 신용위험계수가 0.8~6%, 국고채는 0%가 적용되는 반면, 주식은 12%가 적용되는데 유동성 및 분산도 기준 충족 시 8% 적용
 - 대출채권의 경우 신용위험계수가 대출상품별로 차등 적용되는데,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은 각각 0.8~6%와 1.4%가 적용되고, 약관대출은 0% 적용
-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투자성과 및 요구자본량 측면에서 보험회사는 대출채권 보유를 늘릴 유인을 충분히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 또는 비은행 예금기관에 비하여 대출채권 증가속도가 느린 것은 다른 이유에서 찾아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
 - 예를 들면, 은행은 전통적으로 예금·대출서비스를 중심으로 금융업을 영위하고 있고 채권 발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계대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때 보험회사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음.

3. 보험회사의 대출상품 선택에 대한 선호

- 대출수요 측면에서 보험회사 대출상품보다 은행 또는 비은행 예금기관 대출상품을 선호하는 이유가 존재하는지 검토함.

<보험회사와 은행의 대출금리>

- 은행, 보험회사, 저축은행의 대출금리를 비교한 결과 은행과 보험회사의 금리차이는 크지 않지만 저축은행의 경우 높은 대출금리를 적용
 - 대출상품별 금리를 비교한 결과 은행과 보험회사의 금리차이는 은행간 금리차이와 크게 다르지 않음.
 - 한편 저축은행의 경우 은행 또는 보험회사보다 대출금리가 매우 높는데 이는 대출서비스 대상이 은행 또는 보험회사와 차이가 있음을 의미

<표 4> 보험회사와 은행의 대출상품별 금리

(단위 : %)

금융기관	회사명	대출금리		
		부동산담보 (고정)	부동산담보 (변동)	신용
생명보험회사	삼 성	5.2 ~ 5.85	4.92 ~ 6.62	7.9 ~ 14.9
	교 보	-	4.11 ~	8.1 ~ 12.8
	대 한	국고채 3년물+2.9	CD +3.1	8.4 ~ 16.0
손해보험회사	삼 성	5.18 ~	4.78 ~ 6.18	9.5 ~ 14.5
	현 대	5.03 ~ 6.23	4.53 ~ 5.73	-
	동 부	6.47 ~ 7.27	5.67 ~ 6.47	7.0 ~ 13.0
은행	국 민	6.40 ~ 6.87	6.67 ~ 7.02	7.0 ~ 11.8
	신 한	7.80 ~ 8.70	6.55 ~ 7.43	9.0 ~ 13.5
	우 리	5.78 ~ 6.15	5.59 ~ 5.98	-
저축은행 ²	솔로몬		9.0 ~ 15.5	14.7 ~ 18.4
	서 울		8.5 ~ 12.2	
	현대스위스		7.8 ~ 11.0	14.2 ~ 16.5

주 : 1. 2011.4월기준, 은행 및 보험회사 의 고정금리는 일정기간 경과 후 변동금리로 전환

2. 저축은행의 부동산담보대출의 경우 변동금리 여부가 불분명하고, 대부분의 경우 대출기간이 5년 미만인데 서울 및 현대스위스 저축은행만 대출기간이 각각 15년과 30년

자료 : 저축은행중앙회 및 각사 홈페이지

□ 대출금리 측면에서 가계가 은행의 대출상품을 보험회사의 대출상품보다 선호한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며, 보험회사의 대출고객과 비은행 예금기관의 대출고객은 같지 않아 대출금리로 두 기관을 비교하는 것은 무리

<대출서비스의 접근성>

□ 은행 및 비은행 예금기관은 예금·대출서비스를 전통적인 금융서비스로 수행하는 과정에서 가계의 대출서비스 접근성이 보험회사보다 높음.

- 2010년말 기준 출장소를 포함한 은행 점포수는 7,465개에 달하나,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의 지점 수는 각각 1,383개와 469개에 그침.
- 가계가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을 고려할 때 금융기관 직원 권유 등이 작용²⁾하기 때문에 평소 대출서비스 접근성이 높은 금융기관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음.

2) Will Mayne(2010), "What Consumers Want: Mortgage and Personal Loans in South Korea 2010", DataMonitor

- 또한 은행은 입출금계좌를 보유한 고객을 대상으로 신용대출을 제공하고 있는 반면 보험회사의 경우 보험료 납입기록이 1~2년 이상인 보험상품 보유고객을 대상으로 신용대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대출고객군이 제한됨
 - 보험회사의 잠재 대출고객군이 은행에 비해 작음
- 이러한 대출서비스 접근성 차이가 은행과 보험회사의 대출채권 증가 속도 차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

4. 요약 및 시사점

- 투자성과 측면에서 대출채권과 유가증권을 비교하였을 때 대출채권의 샤프비율이 유가증권보다 높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대출채권을 늘릴 동기가 있음.
 - 또한 요구자본량 측면에서도 보험회사는 대출채권의 비중을 높일 유인이 충분히 있음.
- 그런데 가계는 대출금리, 대출서비스 접근성, 대출심사 편의성을 고려해서 대출상품을 선택하는데, 보험회사 대출상품은 은행 또는 비은행 예금기관에 비하여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임.
 - 대출금리 측면에서 보험회사가 은행보다 크게 높다고 판단하기 어렵고, 저축은행의 경우 보험회사와 대출고객군이 다르기 때문에 대출금리 차이로 인해 대출증가속도의 차이가 설명되기 어려움
 - 보험회사는 은행 및 비은행 예금기관과 전통적 금융서비스가 다르기 때문에 대출서비스의 접근성이 낮음.
- 보험회사는 금융업권간 업무영역 확대 추세에 대응하고 수익률 제고를 위해 자산구성에서 대출채권의 비중을 높이고자 할 경우 대출서비스 접근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KiRi